

— Sat-201 —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서 시신경병증과 동반되어 발생한 전격성 횡단성 척수염 1례

전북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유창우*, 이상일, 류완희

횡단성 척수염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등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데, 대부분의 경우 척수를 '국소적'으로 침범하는 급성, 아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국소성 경부통 또는 요통후 지각이상, 감각소실, 운동력 감소, 괄약근 이상 등의 증상이 몇시간혹은 몇일내로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요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을때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거의 전 척수를 미만성으로 침범하는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에는 그 예후가 지극히 불량하며 전세계적으로 몇몇 증례만이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고, 특히 조기증상으로 시신경병증이 동반되면서 발생한 전격성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에는 그 보고가 전무하다. 이에 본 저자들은 시신경병증과 동반되어 중뇌에서 전 척수에 걸쳐 미만성으로 발생한 전격성 횡단성 척수염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8세 여자 환자가 구토, 두통, 어지러움, 시야흐림, 그리고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4년전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진단 받고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신장 조직 검사상 루푸스 신염 진단 받아 12차에 걸쳐서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요추 천자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고, 시신경병증과 상행성 운동력 및 감각 소실이 진행되어 시행한 자기공명 촬영에서 중뇌, 뇌교, 연수 및 전 척수에서 조영증강되는 소견이 보여서 횡단성 척수염이 진단되었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로와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치료하였으며 1개월 후 촬영한 뇌 자기공명 촬영에서 중뇌, 뇌교 및 연수의 병변은 호전되었으나 흉부와 요추부위의 척수 병변은 더욱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시신경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배꼽 이하부위로 감각 및 운동력은 여전히 소실된 상태이다.

— Sat-202 —

다발성 단신경염으로 발현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1례

이화의대 내과 김수현, 장지은, 이지수

다발성 단신경염은 하나 이상의 단일신경 다발의 병변에 의한 말초 신경질환으로 혈관염을 주 병리기전으로 한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서 혈관염은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이나 백관벽혈관의 혈관염에 의한 다발성 단신경염은 드물다. 특히 루푸스 환자에서 다발성 단신경염은 주로 후기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질병 초기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다발성 단신경염으로 발현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33세의 여자 환자로 4일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발목의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로 내원 하였다. 과거력상 내원 2개월 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입원치료 받은바 있었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다. 신체 검사에서 활력 징후는 혈압 120/7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4 도이었고, 결막은 창백했으며 구강 궤양이 있었다. 폐 및 심장은 정상이었다. 오른쪽 발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었으며 양측 발목의 입통과 종창이 있었다. 신경학적 소견으로는 우측 비골신경과 경골신경 분포부위의 자각과민 증상이 있었고 발목관절의 배측굴곡과 엄지발가락의 신전에 장애가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서 혈색소 8.9 mg/dL, 백혈구수 3800/mm³(호중구 64%, 림프구 17%), 혈소판 48,000/mm³으로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을 보였으며 적혈구 침강 속도는 48mm/hr로 증가되어 있었다. C 반응 단백도 3.5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항핵항체는 speckled type으로 양성이었다. lupus anticoagulant는 48.5sec로 양성 있었고 항 cardiolipin항체는 음성이었다. 근전도검사상 양측 비골신경과 우측 경골신경의 다발성 단신경염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동반된 다발성 단신경염으로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methylprednisolone) 및 cyclophosphamide 투여 후 현재 발의 통증과 이상감각은 호전되고 혈소판도 156,000/mm³으로 회복하여 경과관찰중 이다.